



증시 하락 배경과 대응 전략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도 반도체주 차익 매물 지속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재확인되며 반등할 것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8%대 하락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14시 기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분기 이익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심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우리 시장의 하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 첫째, 메모리 반도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177%, SK하이닉스는 305% 급등했음에도, 동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각각 82조원, 66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상반기 약 150조원 매도에도, 코스피 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연초 36%에서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 둘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역기저 효과로 실적 증감률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매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 셋째, 오늘 급락의 주된 원인은 AI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우려입니다. Open AI 상장 연기,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등이 AI 기업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증가로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만 계속 좋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메모리 반도체 Big2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약 53% 수준으로 지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일본 시가총액 1위 키옥시아가 11% 수준의 급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ikkei 225 지수가 1%대 하락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 올해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주가 호조로 코스피는 약 100%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AI 투자 과열 논란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현재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7월 말 美 빅테크 실적 발표가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지속성이 재확인된다면 우리 증시는 다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